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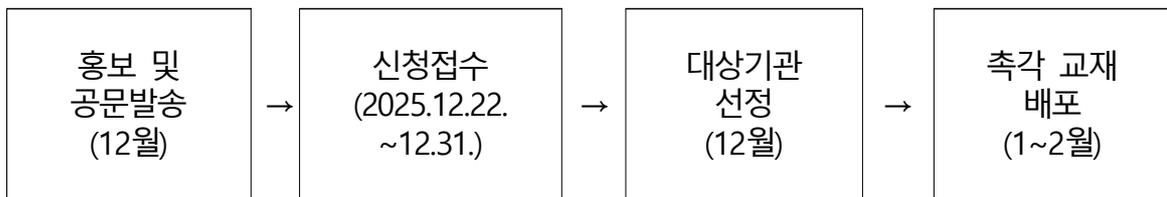


김홍도미술관 <모두의 그림, 김홍도 축감畵(화)> 교재 배포 사업 안내문

(재)안산문화재단은 관내 어린이, 학생들의 시각예술 접근성 확대를 위해 김홍도미술관이 개발한 축각 교재를 보급하고자 합니다. 이에 관심 있는 교육기관의 참여 바랍니다.

□ 개 요

- 사 업 명: <모두의 그림, 김홍도 축감畵(화)> 축각 교재 배포
- 운영기간: 2025. 12월 ~ 2026. 2월
- 대 상: 안산시 소재 교육기관(유치원, 학교, 복지관 등)
- 사업내용: <모두의 그림, 김홍도 축감畵(화)> 축각 교재 관내 교육 기관에 배포(기관당 2개 한정)
*선착순 접수, 수량 소진 시 마감
-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후 메일(danwonmu@naver.com) 회신
- 신청기간: 2025. 12. 22.(월) ~ 12. 31.(수)
- 비 용: 무료
- 문 의: ☎031-481-0506
- 추진 일정(안)



□ 촉각 교재

- 배부 수량: 기관당 2권 한정 ※단, 선정 후 협의에 따라 조정 가능
- 구성 내용

<p>내용</p>	<p>김홍도 생애 전반을 아우르는 장르별 대표작품 14점을 촉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입체 그림과 점자설명, QR코드(음성해설)로 수록되어 있습니다.</p>																			
<p>이미지</p>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목차</th> </tr> </thead> <tbody> <tr> <td>01. 함선의 단원 김홍도</td> <td>06</td> </tr> <tr> <td>02. 세상이 놀란 제주</td> <td>12</td> </tr> <tr> <td>03. 조선의 거리 풍경</td> <td>16</td> </tr> <tr> <td>04. 풍을 일으킨 그림</td> <td>22</td> </tr> <tr> <td>05. 그림으로 남긴 특별한 순간들</td> <td>28</td> </tr> <tr> <td>06. 금강산을 유랑하다</td> <td>30</td> </tr> <tr> <td>07. 마음으로 그린 산수화</td> <td>34</td> </tr> <tr> <td>08. 김홍도 미술관 소장품</td> <td>40</td> </tr> </tbody> </table>	목차		01. 함선의 단원 김홍도	06	02. 세상이 놀란 제주	12	03. 조선의 거리 풍경	16	04. 풍을 일으킨 그림	22	05. 그림으로 남긴 특별한 순간들	28	06. 금강산을 유랑하다	30	07. 마음으로 그린 산수화	34	08. 김홍도 미술관 소장품	40
목차																				
01. 함선의 단원 김홍도	06																			
02. 세상이 놀란 제주	12																			
03. 조선의 거리 풍경	16																			
04. 풍을 일으킨 그림	22																			
05. 그림으로 남긴 특별한 순간들	28																			
06. 금강산을 유랑하다	30																			
07. 마음으로 그린 산수화	34																			
08. 김홍도 미술관 소장품	40																			
	<p>관악아집도</p> <p>1703년 4월 10일 '관악'이라는 장소에서 강세황, 원서형, 허협, 최복, 김홍도, 김덕형 등 18세기 후반을 대표하는 화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장면을 그린 그림이다. 능숙한 필치로 나무와 바위를 그리고, 단행선을 사용하여 재색을 한 것은 심사장과 최복의 필치, 기는 붓으로 간략히 묘사한 인물 표현은 19세기의 김홍도의 솜씨이다. 강세황은 전체 구도를 잡고, 화면 상단에는 화실이 모퉁이의 날짜와 내용을 적었다. 조선 후기 화단을 이끌었던 화가들이 합작품을 완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작품이며, 이들은 당시 경기도 안산을 활동기반으로 했던 화가들로 '관악'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안산 근처 어느 곳으로 추정된다.</p>	<p>관악아집도</p> <p>1703년 4월 10일 '관악'이라는 장소에서 강세황, 원서형, 허협, 최복, 김홍도, 김덕형 등 18세기 후반을 대표하는 화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장면을 그린 그림이다. 능숙한 필치로 나무와 바위를 그리고, 단행선을 사용하여 재색을 한 것은 심사장과 최복의 필치, 기는 붓으로 간략히 묘사한 인물 표현은 19세기의 김홍도의 솜씨이다. 강세황은 전체 구도를 잡고, 화면 상단에는 화실이 모퉁이의 날짜와 내용을 적었다. 조선 후기 화단을 이끌었던 화가들이 합작품을 완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작품이며, 이들은 당시 경기도 안산을 활동기반으로 했던 화가들로 '관악'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안산 근처 어느 곳으로 추정된다.</p>																		